

8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잠언 · 전도서 ·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8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잠언 · 전도서 ·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한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한 질그릇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2009년 8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합 1:4) 라고 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번성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1절).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요,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며, 의인의 고난도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의 소망과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8:31). 두 세계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2).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순간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잠 24: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25절).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을 갈급해 하는 사람의 마음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먼 곳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았습
니다. 특히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소식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갈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과 같이 후련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취시킨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라고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을 주는 데 반해 복음의 소식은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잠 25:25)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1~2). 이는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14절). 이 성구에 나오는 자기 안일에 빠져있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과 같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습관적으로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오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그가 장래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정죄하며 자기를 적당히 합리화하는 타성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허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며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잠 26:15)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09년 여름수련회를 통해 교회학교가 십자가의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미련한 자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분노합니다(2~3절). 문제는 미련한 자가 발하는 이러한 분노가 잔인하며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같이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만 누가 서리요”(4절). 잠언 기자는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담고 있는 미련한 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22절). 그만큼 인간의 미련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권면합니다.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11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눅 24:25).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인간의 정욕과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지배를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갈 5:19~20).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5~26).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잠 27:2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7절).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13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14절), 말씀을 성실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18절). 의인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26절).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4~5절).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며(10절), 자기의 죄를 철저히 숨깁니다(13절).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앙에 빠지고 마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14절).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2:35).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행 5:29). 또한 십자가 복음을 더 힘있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로 1:17).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갈 2:16).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잠 28:5)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왕의 공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은 나라를 견고케 하지만, 뇌물이 통용되는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4절).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모든 나라 전역에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12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관원이든 종이든 자기 자식이든 간에 차별 없는 공의로운 징계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15~19절).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권세와 다스림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는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 29: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굴의 잠언으로,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5절).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8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인간의 연약함을 토설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요 8:50).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1).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 30:5)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잠언입니다(1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공의와 술의 관계를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끝까지 두려우니라”(5절). 왕이 공의를 행하는데 있어서 술이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술을 멀리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삿 13:7). 왜냐하면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10절).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0절). 이와 같이 세상에서 좋아보이는 것들은 거짓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주신 십자가 복음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 전도자는 헛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8절).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의 단조로움과 반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9절). 사실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삶의 회의가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같은 인생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13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구나 겪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사(人生史)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인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엡 2:1). 비록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자는, 괴롭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허무와 낙심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 1: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일꾼을 양성(딤후 4:6)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10절).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유한 것들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고백은 바뀝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백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결코 다시 목마르거나 주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허무와 낙심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7~38). 인생의 자랑과 정욕에 가득찬 세상의 가치있는 것들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영생의 우물을 마음껏 마십시오(사 12:3).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전 2:2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11절).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잠깐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를 용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헤메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우리 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학대받는 모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1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들은 억울하고 괴로워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에서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 3:7).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5).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위로자 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19절). ‘사람이 즐거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 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죄 용서함을 받아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합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습니까?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전 5: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7절).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인생을 얼마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인하거나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먹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요 13:20~2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고후 5:17), 오직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막 8:34~38).

참된 만족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엡 6: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눈으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로다”(전 6:9)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 회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14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 환란의 날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환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을 당합니다. 아마 예수 믿어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환란 당할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굿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 7:13)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1절).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15)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닮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생활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전 8: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인들이나 지체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1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갑자기 세상의 물결이 밀어닥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겁이 나서 그 물결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체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전 9: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음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15절).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이 세상과 섞어져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로 스스로 곤비하게 할 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그 심신이 피곤해 있습니다. 마치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가성 여인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세상의 것은 아무리 누려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번영은 오히려 번민만 더할 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참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음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전 10:15)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더운 여름,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재무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는 말을 37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사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욥 22:24~25)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옛날에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물 위에 씨앗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그때 저들이 던진 씨앗은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얼마 후 물이 빠지면서 기름진 토양이 그 씨앗들을 덮어주었고 싹이 난 그 후에는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 13: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만민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눅 2:10~11). 그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영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복음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전 11:6)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 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13~14절).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것, 이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는 결국 드러나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랑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3~15).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데 있음을 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8절). 십자가를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단순한 고대의 형벌의 도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그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육신을 입고 말구유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총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능력, 마귀의 지배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 집회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보혈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혜란 흔히 돌아가는 사정이나 원리를 기민하게 파악해 현명하게 처신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힘, 능력, 슬기 따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7절, 골 1:26).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면, 관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8절). 관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관원들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엡 1:17).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8)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 다른 지도자들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로 비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10~11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터란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엡 2:20).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터를 위해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어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고 복음 전파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도임을 믿고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아덴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한 제4차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경거리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9~10절).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 복음증거자는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한 자들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불평하지 않고 충성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였습니다(1~12절).

이와 대조적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은 거짓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과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남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판단하는 위치에 앉아 강한 자로 행동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왕 노릇하며 자기를 높이면서 존귀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때문에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고전 4:1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7절).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는 복음(마 13:33 : 눅 13:21)으로, 나쁜 의미에서는 죄(갈 5:9)로 상징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룩이 없는 자’는 죄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롬 7:1~2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히 9:26). ‘새 덩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된 자, 새로운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요 3:5 : 고전 1:2 : 고후 5:17).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는 자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든 누룩을 집에서 내어버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모든 죄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창조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묵은 누룩, 즉 음행 등의 악습과 옛 사람의 습관을 마땅히 내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유흥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전 5:7)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창 2:7). 모든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19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이 가장 차원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인으로서의 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몸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20절). 이제 성도의 몸은 성전으로서 성도 자신의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은 자신의 뜻대로 정욕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17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원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심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19절). 여기서 계명은 법적 규제가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4)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만일 음식물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12~13절). 이것은 성도의 소극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적극적인 의무는 이웃의 생명과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빌 1:20~24).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지식의 행사에 있어 자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절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롬 14:21).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절제의 삶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섭시다.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16절) 말씀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음은 깨닫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득불’, 즉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인 까닭에 사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충성뿐임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충성은 사랑할 것이 없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보상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한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17~18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우상숭배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상숭배가 곧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함을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20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주와 하나가 되듯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21절).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한 아내가 두 남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구원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들과 우상들을 제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위원회와 9개 찬양대, 2개 연주대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예배 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문제와 성만찬에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한 후, 예배의 질서를 위해 여자가 수건을 써야 한다고 결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린도교회 안에서 제기된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관습에 의하면 성만찬과 관련하여 에찬이 행해졌는데, 이러한 관습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던 것입니다(17절).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각 계층별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편당을 짓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19~21).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된 심령으로 성만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성만찬의 취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그저 자신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21절).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23~25절).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7~29절). 성찬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한 후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8월 구역교재 초점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나병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과 그분이 걸으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첫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보증하는 유한한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점
0731	출애굽기 3:10~12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0807	마태복음 8:1~4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0814	창세기 22:1~14	아브라함의 희생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자
0821	요한계시록 2:1~7	에베소교회를 향한 편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자
0828	요한일서 2:15~17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심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 초점 |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 찬송 |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 본문 | 출애굽기 3:10~12

¹⁰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¹¹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¹²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을 당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 3:10

※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말하는 면에 있어서 모세는 매우 악했다

모세는 언변이 매우 어눌했습니다.

출 4:10 /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_____
 _____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하고 혀가 자니이다

모세는 탁월한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그의 과거의 노력 역시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출 2:12~15).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완전히 실패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특징은?

고전 1:26~29 _____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하찮은 자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행동 면에 있어서 모세는 매우 온유했다

모세는 아주 온유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출 3:11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_____ 바로에게 가며 이
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 12:3 _____

마 11:29 _____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면에 있어서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딤후 6:11~12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와 □□
과 □□과 □□과 □□와 □□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
우라 □□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당당하며 자기 주도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겸손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종들을 좋아하십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확실한 임재의 표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출 3:12 _____

※ 빈칸을 채우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	어부	복음전도자
요한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바디매오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나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고후 4:7 / 우리가 이 보배를 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딤후 2:15 / 너는 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으로 인정된 자로 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2.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삶과 가정이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2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 초 점 |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 찬 송 |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가 472장 네 병든 손 내밀라고

| 본 문 | 마태복음 8:1~4

①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②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③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④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마 5~7장)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 7:29 _____

※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단락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후 늘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나병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것입니다.

※ 예수님 당시 나병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나병환자는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다

나병환자는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마 8:1~2 / 예수께서 □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_____
_____ 하거늘

보통 때라면 사람들은 나병환자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부정한 나병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눅 19:10 _____

겔 34:16 _____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롬 3:9~10 ; 갈 3:22).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히 9:27).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롬 6:23 _____

나병환자는 그리스도께로 갔다

나병환자는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마 8:2

성경은 나병환자가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용감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나병환자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 누가복음 23:42, 요한복음 8:11 말씀을 찾아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과 그 모습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는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까?

히 10:24

나병환자는 깨끗함을 입었다

나병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 8:3~4 /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_____
_____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
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_____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깨
끗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전 6:9~11 / _____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
지 못하느냐 _____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니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_____
_____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_____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지시자마자 그의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그
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
씀에 열광하였습니다. 나병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 사람을 보며 사람
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흥분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죄 사함
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 요한일서 1:7~9 말씀이 주는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나병환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

요일 3:3 / 를 향하여 이 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벧전 1:22 / 너희가 를 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어 들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3과 아브라함의 희생

| 초 점 |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자

| 찬 송 |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본 문 | 창세기 22:1~14

^㉑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㉒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㉔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참 신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갈 3:29

※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믿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십시오.

창 22:2 _____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애정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사람,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요 3:16).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창 22:6,9~10 /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_____
_____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_____
_____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막 14:36 _____

번제 나무를 쌓는 동안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무거운 고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를 감내했습니다. 제단 위의 이삭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불과 칼

불과 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창 22:6 _____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과 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히 12:29 _____

속 13:7 _____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희생이 거룩함의 불, 심판의 칼,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체된 제물

마지막으로 제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창 22:13 /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광경은 마치 갈보리산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이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매달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량자를 찾으셨습니다.

※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창 22:14 _____

롬 8:32 _____

요 1:29 _____

아브라함의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히 5:8~9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당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과 에베소교회를 향한 편지

| 초 점 |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자

| 찬 송 |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 본 문 | 요한계시록 2:1~7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㉕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고, 그 당시 성장했던 일곱 교회를 향해 각각 다른 말씀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책망, 당부를 정리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3장).

교회명	칭찬	책망	당부

이 일곱 교회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교회, 가족, 각 개인들의 유형과 조건들을 대표합니다. 선택된 일곱 교회들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특별한 편지가 필요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들, 가정들, 신자들도 역시 각각의 연약함을 도와줄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 필요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칭찬하다

예수님은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몇가지 예를 보여주었던 에베소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계 2:1~3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와 네 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행악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명예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복음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교회는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 빌립보서 4:4~8 말씀에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본 뒤 나누어 보십시오.

책망하다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후에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계 24

겉에서 볼 때 에베소교회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식어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삶이 괴로워서 더 이상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을 때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고전 13:1~3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심은 없고 판에 박힌 듯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일시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보셨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가 변화되어 참사랑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부하다

예수님은 에베소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계 2:5~6 /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하고 ☐☐하여 ☐
☐☐☐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사랑의 그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돌아
보며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
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첫 회심의 순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돌이켜 그 특별한 때로 돌
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
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흥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시 34:18

눅 15:7

에베소교회를 향한 편지는 곧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책망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당부에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계 2:7 / 귀 있는 자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눅 13:24 _____

교회설립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참교회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이 보혈로 역동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

5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 초 점 |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자

| 찬 송 |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본 문 | 요한일서 2:15~17

⁽¹⁵⁾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¹⁶⁾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¹⁷⁾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3:14,18, 4:10 말씀을 묵상한 뒤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게으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 20:13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놓고 볼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현재 나는 복음을 위해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사탄은 게으름뱅이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 그들을 부르실 때 모세와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였고, 엘리야는 밭을 일구는 농부였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행 20:31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일 2:15~16 / 이 _____ 이나 _____ 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_____ 과 _____ 과 _____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 된 본성을 악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개념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위험한 지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점검하며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딤후 5:22 _____

※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딤후 4:5 /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하여 ☐☐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를 다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마 6:24 _____

딤후 6:10 _____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 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 5:40). 어떻게 누군가 천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 예수님을 만난 한 부자 관원과 삭개오에 대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한 부자 관원 (눅 18:18~30)	삭개오 (눅 19:1~10)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의 만난 후의 모습		
예수님의 평가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해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갈 2:20 _____

요일 2:17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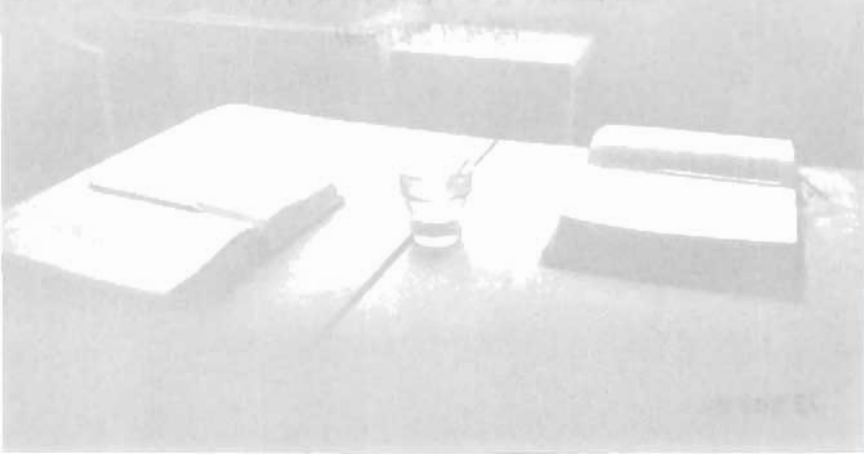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침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소서.
2.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희생

⁽¹⁾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²⁾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14)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29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참 신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삶은 신실한 믿음의 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담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온전히 순종하 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 지고…”(창 22:3).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 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믿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 해 믿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 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희생

첫째,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 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애정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 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 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

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입니다.

이삭의 순종

둘째,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오늘의 성경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 22:6,9~10).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일백이십오 세쯤 이었고, 이삭은 이십오 세쯤이었습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번제 나무를 쌓는 동안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무거운 고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를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불과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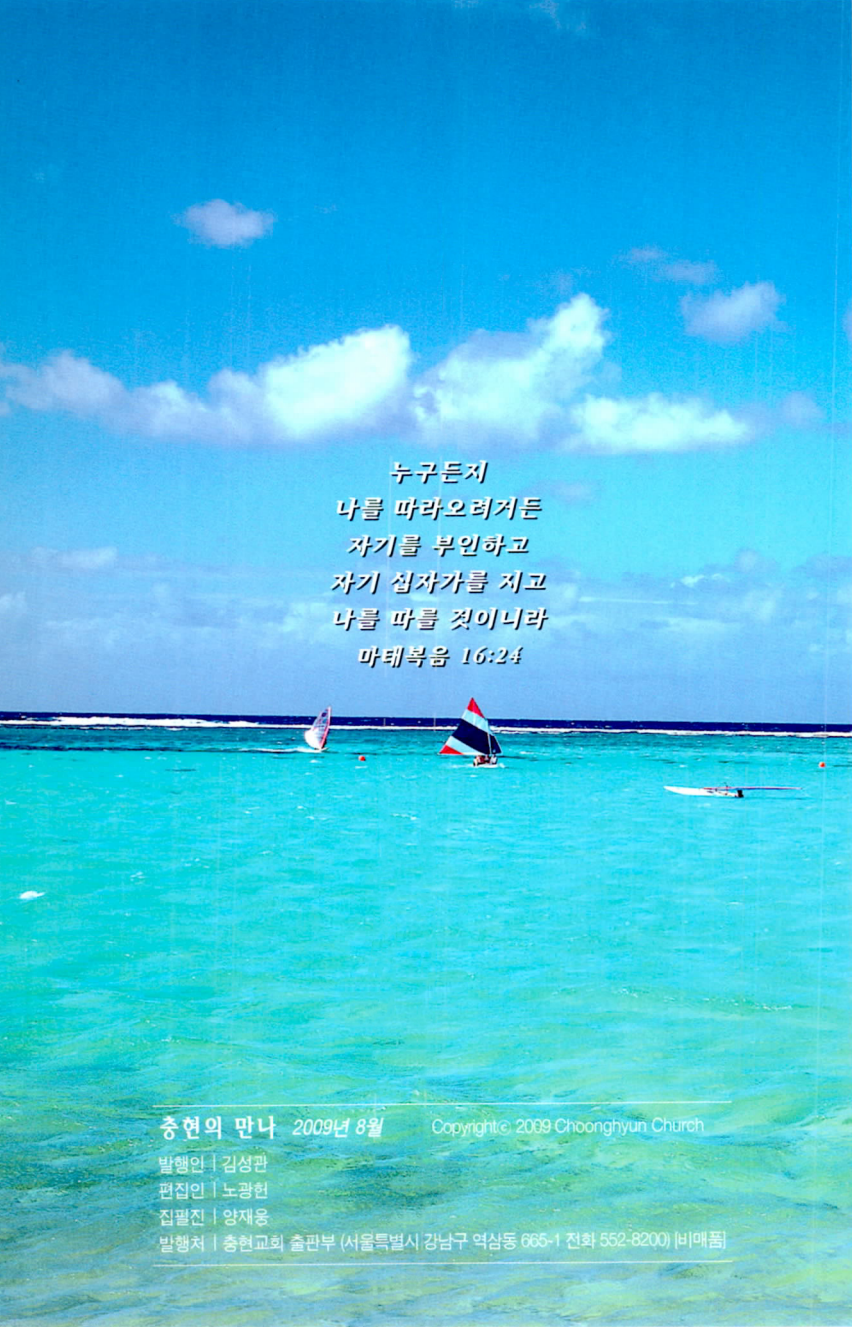
셋째, 불과 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창 22:6). 이러한 요인들은 아주 엄숙함을 자아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2:29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과 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3:7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울부짖었을 때 칼은 하늘에서 떨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희생이 거룩함의 불, 심판의 칼,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움직였고 그의 영혼은 죄를 뉘우치며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취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크게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2).

대체된 제물

마지막으로, 제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창 22:13). 하나님은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광경은 마치 갈보리산과 흡사합니다. 다른 제물이 없었다면 결말이 이처럼 완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숫양은 번제물이 되었고 이삭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이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매달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량자를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희생제단을 쌓았던 곳을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마서 8:32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숫양을 보았을 때 자신을 대체할 그 무엇이 있었음을 믿었는지 이삭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낀 것과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8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